

# 진도 '가사도 차도선' 보조금 2년 갈등... "정부 대승적 결단을"

### 국토부 '건조비 27억 환수' 결정... 여객선 운항 중단에 주민 불편 진도군 "권익위 의결 수용 환수 취소" 행안부 "국토부와 협의할 것"

국토교통부와 진도군이 2년 동안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사도 차도선 건조 보조금 환수 갈등'이 또 해를 넘기게 됐다.

차도선 건조에 사용된 보조금을 놓고 중앙과 지방자치단체의 입장 차이가 좁혀지지 않으면서 행정력만 낭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진도군 등에 따르면 문제의 발단은 2015년 3월 진도 가학항-가사도를 운항하는 민간선사의 여객선이 수익성 악화 등을 이유로 갑자기 운항을 중단

하면서 시작했다.

280명이 거주하는 가사도 주민들은 여객선 운항이 중단된 이후 3년 동안 작은 여선을 이용해 육지를 왕래하는 등 불편을 겪어야 했다.

군은 대체 선박을 확보하기 위해 가사도를 운항하던 기존 선사와 접촉했지만 이미 도선 면허를 반납하고 선박을 경남 남해군 항로에 임대한 상태였다.

진도항과 조도면을 운항하는 선사인 서진도농협

측도 내부 검토 결과 가사도 항로를 운항하면 많은 손실이 발생하는 등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 가사도 도선 운항을 포기했다.

또 신규 민간 선사 유치를 위해 운항 손실 보전을 조건으로 1년여 동안 20여개 선사와 접촉했지만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자가 전혀 없어 주민들의 생존권을 위해 군은 긴급하게 차도선을 건조했다.

군은 차도선 건조를 위한 검토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등에 급수선 건조 비용을 차도선으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했지만 '기존 국가보조 항로와의 중복' 등을 이유로 승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군은 해운법에 따라 가사도 항로는 국가보조항로가 아니라 진도군이 매년 4억원의 항로 운항 결손금을 지원하는 독립된 일반항로라는 입

장이다.

항로 해석을 잘못 판단해 보조금 변경 승인이 충분히 가능한 사업임에도 불응한데 억울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는 것이다.

이후 가사도는 도서종합개발사업비 27억원으로 차도선을 건조한 것은 '부적절한 사용'이라며 보조금 환수를 통보했다.

이에 대해 진도군은 여객선이 끊긴 가사도 주민들의 이동권과 생존권, 생명권 보장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반박했다.

가사도 주민들은 차도선 건조에 사용된 보조금 환수 조치가 현실화할 경우 또다시 생존권이 위협받을 수 있는 처지에 놓이자 보조금 환수 반대 대책위를 구성, 국민권익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

다.

국민권익위는 현장 조사 등을 실시한 후 '국토교통부는 보조금 환수 조치를 취소하고 보조금 환수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가사도 주민들은 "국토교통부는 정부 기관인 국민권익위 권고를 수용해야 하고 당초 항로 해석을 잘못 판단해 처리한 중앙정부의 행정 처리 잘못이 매우 크다"며 "국토교통부 등 중앙정부의 대승적 결단이 이제는 필요할 때이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차도선 건조 과정에서 국토부와 협의의 충분히 하지 않은 아쉬움이 있다"면서 "진도 현지에 내려가 살핀 상황 등을 토대로 국토부와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진도=박현영 기자 hypark@kwangju.co.kr

## 스마트 '목포 관광' 시대 열렸다... 관광 플랫폼 구축

### 음식점·숙박·교통 등 정보 '손 안에'... 모바일 도슨트·증강현실도 체험

목포시가 스마트폰 하나로 목포 관광을 즐길 수 있도록 최신 정보통신기술(ICT)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 관광 플랫폼'을 구축했다.

20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목포시 스마트 관광 플랫폼은 사용자 중심의 맞춤형 관광 정보와 ICT를 융합한 관광 콘텐츠를 제공한다. 영어, 중국어, 일본어 등 다국어로 제공돼 국내외 관광객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됐다.

빅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관광객 유형과 분

포, 이동통신, 소비형태 등 관광 상황 파악이 가능하며 관광정책 수립에도 반영된다.

관광객은 목포에서 현재 위치 기반의 관광지, 음식점, 숙박, 교통 관련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사업자는 사업장 정보, 메뉴, 이벤트, 리뷰 관리 등을 통해 사업장을 홍보할 수 있다.

이 외에도 관광지, 박물관 등에서 해설사를 대신해 비대면으로 안내·해설해 언택트 시대에 부응하는 방식으로 색다른 경험을 제공한다.

골목길을 거닐면 모바일 도슨트가 소개하는 목포 역사, 한국문학사를 빛낸 지역 문학인들의 생가와 발자취를 음성, 사진, 증강현실(AR) 등을 통해 실감나게 즐길 수 있다.

목포시 스마트관광 플랫폼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와 애플 앱스토어에서 '목포관광'을 검색하면 누구나 무료로 다운받을 수 있다.

목포시 관계자는 "스마트관광 플랫폼이 코로나 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관광산업에 활력을 넣고, 관광객에게는 차별화된 경험과 편리함을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목포=문병선 기자·서부취재본부장 moon@

## 신안군 '섬 겨울꽃 축제' 중단... "2022년 1월 다시 만나요"

신안군은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고 오미크론 변이 발생 등 심각한 방역상황을 고려해 '섬 겨울꽃 축제'를 내년 1월3일 이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일부터 진행되고 있는 '섬 겨울꽃 축제'는 발열체크, 거리두기, 마스크 상시착용, 취식금지 등 핵심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행사를 진행했다.

축제가 열리는 천사섬분재공원은 아름다운 다도해 바다정원이 내려다보이는 압해읍 송공산 남쪽 기슭 5만평(16만5000㎡)의 터에 조성돼 있다.

분재원과 야생화원, 수목원, 초화원, 삼림욕장 등을 갖추고 있고, 다양한 명품 분재와 아프리카 석조 문화의 진수인 쇼나 조각품을 전시하는 한겨울에 흔치 않은 말 그대로 바다 위 꽃 정원이다.

박우량 신안군수는 "섬 겨울꽃 축제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해 다소 아쉽다"면서 "중대본이 발표한 특별대책기간이 끝난 후 단계적 일상이 회복되면, 새하얀 눈 속에 피어난 아기동백꽃을 보며 치유의 시간을 가지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압해도 천사섬분재공원 아기동백.



해남 고구마 생산자 협동조합이 지난 17일 발기인과 설립동지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었다.

## "해남 고구마 위상 지키다" 생산자 조합 창립

### 소규모 농가 품질 균일화·유통창구 일원화 시스템 구축

해남 고구마의 위상을 지킬 고구마 생산자 협동조합이 창립됐다.

해남군에 따르면 고구마 생산자 협동조합은 지난 17일 발기인과 설립동지자 등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를 열고 정관 승인, 임원선출,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등을 했다.

조직화·규모화된 고구마 생산자협동조합을 통해 소규모 재배농가의 유통관리를 체계화하고 유통창구를 일원화하는 종합 품질관리 시스템이 구축될 것으로 보인다.

해남군은 최고 품질 고구마를 생산, 소비자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해남고구마산업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2025년까지 297억여원을 투입해 생산과 유통, 가공에 이르는 총 26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종합발전계획에 따라 군은 고구마 우량종순 안정 생산 기반구축과 선별·세척·큐어링 등 시설·기술 지원에 나선다.

생산과 수확 후 관리를 세분화해 품질을 균일화하고 상품성도 높여 나갈 예정이다.

해남은 600여 농가가 1964ha에서 연간 3만 4000여t의 고구마를 생산하는 전남 최대 고구마 주산단지다. 전국 재배면적의 10%를 차지한다.

게르마늄이 다량 함유된 황토 땅에서 해풍을 맞고 자란 해남 고구마는 당도가 높고 식이섬유와 무기질 성분이 많으며 지리적 표시농산물 42호로 등록돼 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 영암군농업기술센터, 농촌진흥사업 평가 '최우수기관'

영암군농업기술센터가 2021년도 농촌진흥청 주관 전국 농촌진흥사업 종합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돼 농촌진흥청장상을 수상했다.

농촌진흥청은 올해 전국 147개소의 농업기술센터를 대상으로 기술보급사업 종합만족도, 디지털 농업기술 확산 및 현장으로 해소 실적, 전문역량개

발 실적 등에 대한 평가를 진행했다.

영암군은 벼 흰잎마름병 예방 시책 개발 추진과 꽃고추 지역특화작목 육성, 재해대응 병해충 공동방제 추진, 농촌지도조직 확대 등 모든 분야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시상식은 오는 24일 진행된 다.

/영암=전봉환 기자 jbh@kwangju.co.kr

# 그린궁 宮 프라임에버 120

GREEN GOONG PRIME EVER 120

**다시 맞이하는  
빛나는 아름다운 여성의  
건강한 봄날을 위하여!**

그린궁프라임에버120은 소중한 여성의 피부 건강과 저하된 면역력을 증진시켜 주며 장 건강 그리고 뼈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활력있는 여성의 아름다운 건강을 위한 여성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